

【논 문】

元末明初 韓中關係 속의 滿洲*

—恭愍王과 禡王代를 中心으로—

임 상 훈**

차례

- I. 14世紀 中後期 激動의 滿洲
- II. 恭愍王代 滿洲 進出과 女眞 招撫
- III. 禡王代 納哈出的 沒落과 明의 滿洲 掌握
- IV.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14세기 중후반 원말명초 만주의 정세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흥건적의 난 등이 발생하며 원은 만주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고려의 공민왕은 반원을 천명하며 만주로 진출하였고, 고토의 수복과 여진족 초무에 큰 성과를 낳았다. 명 건국 초기, 불안한 국내 사정으로 명 역시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오히려 고려를 이용해 동북의 안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홍무 중반에 들어서면서 명의 국내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홍무제는 만주에 여러 위소를 건설하며 나하추와 복원을 압박해 나갔다. 결국 나하추라는 동북의 큰 근심거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홍무제는 이곳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고려에 일방적으로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였다. 고려에서는 철령위 철폐를 요청하는 한편 요동정벌을 기획하였고, 결국 이는 위화도회견과 이성계의 고려 정권 장악, 그리고 조선 건국이라는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본고는 공민왕 대와 우왕 대를 중심으로 중국 국내 정세와 고려·명·북원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만주의 변화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 본고는 2024년 4월 만주학회와 인천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 '동아시아에서 본 만주의 역사와 문화'에서의 발표문에 여러 토론 의견을 반영·수정하여 투고한 것이다. 여러 토론자분과 전북대 박정민 선생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순천향대 중국학과 교수.

통해 만주의 역사적 위상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하였다.

주제어: 원말명초, 만주, 고려, 명, 복원, 공민왕, 우왕, 홍무제, 나하추, 여진, 한중
관계

I. 14世紀 中後期 激動의 滿洲

滿洲 지역은 高句麗의 故土이자, 우리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契丹·女眞(滿洲) 등 많은 민족의 발원지 등이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우리에게서 만주가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주 지역이 우리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14세기 중후반 만주의 역사적 중요성은 더욱 부상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 대륙에서는 강력했던 元 제국이 몰락하고 漢族의 明이 건국되며, 한반도에서 역시 高麗가 멸망하고 朝鮮이 세워지는 격랑이 일던 때였다. 이 시기 만주에서도 특히 요동 지역¹⁾은 北元과 명, 고려의 삼자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녔기에 이를 둘러싼 삼국의 각축전이 연이어 벌어졌다.

먼저 이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고려이다. 원말 紅巾賊의 亂 등의 동란 이래, 원의 중원 통치는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만주 지역 역시 서서히 원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고려의 恭愍王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雙城을 격파하며 故土를 수복했고, 압록강을 넘어 만주로 진출하며 東寧府를 공격하며, 그 일대의 女眞族을 대거 흡수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洪武 중반 이후 명의 내부와 변경이 안정화됨에 따라, 명은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며 고려의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삭감해 나갔다. 명은 복원의 중추이자 만주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納哈出(이하 '나하추')의 제거를 위

1) 본고에서 다루는 '만주'는 만주 전체가 아닌 '요동' 지역 위주이다.

해 여러 衛所를 설치해 나갔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명의 대군은 나하추 세력을 와해시켰다.

홍무제는 나하추 제거 이후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며 鐵嶺衛 설치를 고려에 통보하였고, 이는 결국 고려의 遼東征伐과 威化島回軍, 그리고 李成桂의 고려 정권 장악과 朝鮮의 건국이라는 連鎖反應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원말명초 만주를 둘러싸고 고려·명·북원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세는 위와 같이 중요한 역사적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이 시기 만주의 역사적 위상과 중요성에 착안하여 그간 다양한 연구 성과가 쌓여 왔으나,²⁾ 복잡한 중국의 정세, 그리고 당시의 韓中關係를 중심으로 이 시기의 만주를 들여다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고는 이러한 기초 위에 원말명초 고려와 북원·명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 내부의 정치 상황을 통해 만주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과정과 여진족의 추이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편폭의 제약과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원말명초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고려가 만주로 진출하기 시작한 공민왕 대와 이성계가 정권을 잡기 직전인 禡王 대에 집중하려 한다. 이를 통해 원명 교체 시기 만주의 역사적 위상과 그 중요성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국내의 연구로는 고석원, 1977, 「여말선초의 대명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운룡, 1980, 「고려 공민왕대의 대원명관계-관계변개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14; 김성준, 1981, 「고려와 원·명 관계」, 『한국사』 8; 황원구, 1986, 「여말선초의 대명관계」, 『한국사의 재조명」, 민성사; 김순자, 2000, 「여말선초 대원·명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은숙, 2006, 「蒙元 帝國期 窩持 衾家の 東北滿洲 支配: 中央政府와의 關係 推移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록, 2007,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 2009, 「여말선초 국제질서의 변화와 조·중관계」, 『세계 속의 한국사』, 태학사; 임상훈, 2015, 「명초 홍무제의 말 강요와 여명관계」, 『중국사연구』 제99집 등의 훌륭한 연구 성과가 존재한다. 외국의 연구로도 張士尊, 1997, 「高麗與北元關係對明與高麗關係的影響」, 『綏化學院學報』 1期, 綏化學院; 薛瑩, 1997, 「明洪武年間明朝與高麗關係略論」, 『社會科學戰線』 4期, 吉林省社會科學院; 刁書仁, 2001, 「元末明初朝鮮半島의 女真族與明、朝鮮의 關係」, 『史學集刊』 3, 吉林大學; 2004, 「洪武時期高麗、李朝與明朝關係探析」, 『揚州大學學報』 8卷1期, 揚州大學; 姜龍范·劉子敏, 1998, 「明太祖在位時大明與高麗的關係」, 『延邊大學學報』 2期, 延邊大學; 末松保和, 1965,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 『靑丘史草』 1, 笠井出版印刷社; 宮崎市定, 1969, 「洪武から永樂へ-初期明朝政權の性格-」, 『東洋史研究』 27-4, 東洋史研究會 등이 있다.

II. 恭愍王代 滿洲 進出과 女眞 招撫

원대 만주 지역은 원의 직접 통치 아래에 있었다. 중원을 통일한 원은 각 지역을 직접 통치 하에 두기 위해 여러 行省을 설치하였고, 그중 원은 至元 年間 만주 지역에 遼陽行省을 신설하며 이 지역을 다스렸다. 요양행성의 정식 명칭은 遼陽等處行中書省이며 遼東宣慰使라고도 불렸다. 그 관할 지역의 범위는 동으로는 東海, 서로는 嫩江, 남으로는 요동반도의 남단, 북으로는 外興安嶺(스타노보이 산맥)에 이르며, 광활한 만주 지역을 총괄하던 원의 지방통치기구이다.³⁾

『元史』의 기록에 따르면, 요양행성 내 원주민의 다수를 차지했던 여진족의 주요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한반도 북부 및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松花江·烏蘇哩江·黑龍江 유역으로서, 원은 이곳에 合蘭府水達達等路를 두고 그 아래에 桃溫·胡里改·斡朵憐·脫斡憐·孛苦江의 다섯 軍民萬戶府를 설치하여 이 일대의 여진족을 관리하였다.⁴⁾



[그림 1] 元代 遼陽行省 內 女眞族 居住地와 管理 機構⁵⁾

3) 薛虹, 1991, 『中國東北通史』, 吉林文化出版社, 304쪽.

4) 『원사』 권59, 「지리지」 2, 遼陽等處行中書省·合蘭府水達達等路.

원의 만주와 여진족에 대한 공고했던 지배는 원말에 이르러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원도 한족에 대한 지독한 탄압, 연이은 대기근, 대규모 토목 공사와 寶鈔의 남발, 역병의 창궐, 황실 내 격렬한 권력 다툼 등 온갖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며 망국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14세기 중반,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여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자, 원의 만주와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 역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고려에서도 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진 공민왕이 등극한 후, 奇氏 등 국내 附元勢力을 축출하며 대대적으로 反元을 천명하였다. 또한 홍건적의 난 등으로 중원의 정세가 요동치자, 이를 이용하여 고토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만주의 여진과 그 영토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공민왕 5년(지정 16년, 1356), 공민왕은 評理 印璫과 同知密直司事 姜仲卿을 西北面兵馬使로, 司尹 辛珣·俞洪·前大護軍 崔瑩·前副正 崔夫介를 副使로 삼아 압록강 서쪽의 여덟 곳을 공격하게 하였다. 동시에 密直副使 柳仁雨를 東北面兵馬使로, 前大護軍 貢天甫·前宗簿令 金元鳳을 副使로 삼아 雙城 등 지역을 수복하게 하는 등 본격적으로 반원의 의지를 천명하며 서북·동북 방향으로 고토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⁶⁾ 같은 해 6월, 인당은 압록강을 넘어 婆娑府 등의 세 참을 함락시키는 공을 세웠다.⁷⁾ 이와 같은 승전보를 접한 공민왕은 원의 몰락을 직감하며 곧바로 원의 지정 연호를 정지하였고, 대외적으로 반원을 천명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의 이와 같은 행동에 원이 강한 불만을 품었음은 틀림없다. 원은 바로 고려에 사신을 보내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였으나, 홍건적의 난이 한창인 시국에 별다른 실제 군사 행동을 취할 수는 없었다.⁸⁾ 하지만, 공민왕은 한 달 후인 7월 고토 수복에 큰 공을 세운 西北面兵馬使 印璫의 목을 베고, 원에 表文을 보내 사죄하는 행동을 보였다.⁹⁾ 이는 아마도 원을 과도하게 자극하다 실제 군사 행동을 취하게 하

5) 譚其驤, 『중국역사지도집』 7, 「원대 요양행정」, 13-14과 『원사』 권59, 「지리지」 2, 遼陽等處行中書省·合蘭府水達達等路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6) 『고려사』 권39, 「공민왕세가」 39, 공민왕 5년 5월 정유.

7) 『고려사』 권39, 「공민왕세가」 39, 공민왕 5년 6월 계축.

8) 『고려사』 권39, 「공민왕세가」 39, 공민왕 5년 6월 을해.

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한 계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민왕은 이후 서북과 동북에 대한 군사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수북 지역에 대한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았다.

공민왕 5년에 江陵朔方道라고 불렀고, 7월에 樞密院副使 柳仁雨를 여기에 보내 雙城을 격파케 하였다. 이로써 地圖에 따라 和州·登州·定州·長州·預州·高州·文州·宜州와 宣德·元興·寧仁·耀德·靜邊 등 鎭의 여러 城을 다시 찾았다. 이전에 삭방도는 都連浦로써 경계를 삼아 長城을 쌓고 정주·선덕·원흥 등 3개의 關門을 설치하였는데, 이 지역을 元에 빼앗긴 이후 99년만인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찾았다. 壽春君 李壽山을 都巡問使로 임명하고 경계를 획정하여 다시 東北面으로 고쳤으며, 9년에 삭방강릉도라고 불렀다.¹⁰⁾

위와 같이 공민왕은 쌍성 수복 이후 서북과 동북 방면의 확장을 위한 대대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고토 회복 운동은 공민왕 5년(지정 16년, 1356)과 6년(지정 17년, 1357)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흥건적의 난 등으로 원이 크게 위축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자극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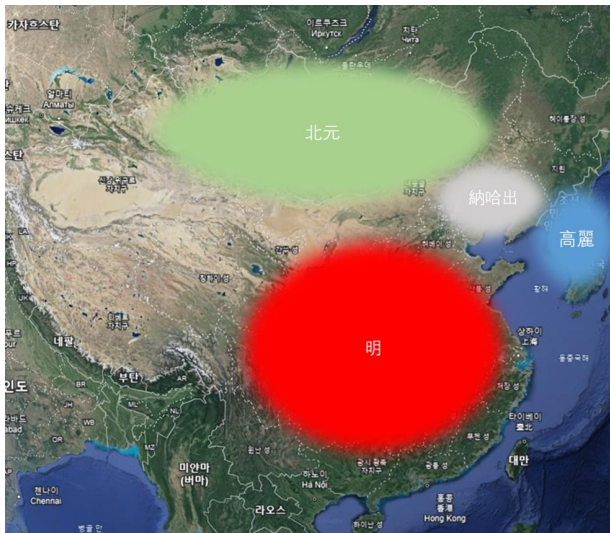
이후 1368년(洪武 원년, 지정 28년, 공민왕 17년) 정월, 朱元璋은 應天府(現 江蘇省 南京)에 도읍을 두고, 연호를 洪武라 칭하며 明을 건국하였다. 같은 해 8월, 명의 대군이 원의 수도 大都를 공파하자, 원 順帝는 上都로 도피하였다. 이는 중원의 패권이 몽골족에서 한족으로 넘어갔고, 만주 지역에 대한 원의 영향력이 또 다시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몽골은 여전히 北元이라는 이름으로 捲土重來를 노리고 있었고, 더욱이 명초에는 아직 원의 잔존세력이 곳곳에 남아 있어 명의 완전한 중국 대륙 지배는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예를 들어 山西·陝西·甘肅 등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王保保(코케테무르(擴闊帖木兒), ?-1375), 雲南의 梁王(바자

9) 『고려사』 권39, 「공민왕세가」 39, 공민왕 5년 秋7월 무신.

10) 『고려사』 권58, 「지리지」 3, 東界.

라와르미(把匝刺瓦爾密, ?-1382), 만주의 納哈出(나하추, ?-1388) 등의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몽골 鐵騎를 거느리며 호시탐탐 중원 수복을 기도하고 있었다.

상술한 세력 중 만주를 점거한 나하추는 명과 고려, 북원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당시 나하추가 장악하였던 만주의 요동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잇는 주요 경로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원과 명 그리고 고려 삼국의 가운데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그림 2] 元末明初 明·北元·高麗·納哈出 勢力圖¹¹⁾

[그림 2]와 같이 명 초기, 명을 둘러싸고 북원과 나하추 등의 잔존 세력이 도처에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홍무제는 강경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하며 이들을 흡수해 나갔다. 고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북원과 만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생각한다.¹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무 원년(공민왕 17년, 1368) 12월, 홍무제는 符寶郎 僕斯

11)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 위에 필자가 작성.

12) 원말 공민왕은 비록 반원을 표방하며 주원장 외에 장사성·명옥진 등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

를 고려에 출사시켜 璽書를 보내며 국교 수립의 의지를 타진하였다.¹³⁾ 이에 공민왕 역시 한 달여 만에 곧바로 사신을 보냈고, 이로서 고려와 명의 정식 교류가 시작되었다.¹⁴⁾

건국 초기 명은 만주에 대한 영향력 발휘는 아직 구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때마침 공민왕의 명에 대한 강한 친교 의지를 확인한 홍무제는 고려를 이용해 동북의 안정을 기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원의 완전한 몰락과 홍무제의 고려를 통한 만주 지역 안정화라는 의도 등의 국제정세를 파악한 공민왕은 또다시 고토 수복을 위한 군사 행동에 돌입하였다. 공민왕 18년(홍무 2년, 1369), 공민왕은 東北面과 西北面の 要害地에 萬戶·千戶를 다수 설치하고 元帥를 보내 東寧府를 공격하여 北元과의 관계를 끊으려 계획하였다.¹⁶⁾ 결국 이듬해 정월, 李成桂에게 동녕부 정벌을 명하며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 또 다시 압록강을 넘어 만주로 진출하였다. 이는 공민왕 5년(지정 16년, 1356)의 쌍성 수복 이후 14년이 흐른 시기였다. 고려의 압록강을 넘어선 14년만의 만주 진출은 이전과 같이 영토를 크게 확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동녕부 관할 하의 여진족을 포함한 그 주민들의 초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만, 아직 중원의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던 중 명이 먼저 사신을 보내옴으로서 공민왕은 원과의 관계를 끊고 명과 국교를 수립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홍무제의 고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는 공민왕의 친명반원 정책과 부합하였다는 원인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왕 이후 홍무제의 고려와 조선에 대한 태도가 매우 적대적으로 돌변한 것을 보면 이는 명 내부의 안정에 따른 고려에 대한 중요성 저하된 상황에서 공민왕의 시해 이후 계속되는 고려의 내분과 이성계의 찬탈 등에 대한 강한 시의심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한다(임상훈, 2015, 「명조 홍무제의 말 강요와 여명관계」, 『중국사연구』 제99집, 136쪽).

13) 『명 태조실록』 권37, 홍무 원년 12월 임진.

14) 홍무제가 고려에 보낸 사신 설사가 고려에 도달한 것은 공민왕 18년(홍무 2년, 1369) 4월이며(『고려사』 권41, 「공민왕세가」 4, 공민왕 18년 4월 임진), 공민왕이 홍무제에게 謝恩使를 보낸 것은 한 달 후인 5월이다(『고려사』 권41, 「공민왕세가」 4, 공민왕 18년 5월 갑진). 이를 통해 공민왕의 친명반원에 대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15) 물론 홍무제의 의도, 즉 명이 원을 대신하여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 구축이라는 의도도 중요한 테지만, 이런 사상적인 측면 외에도 군사적 측면에서의 의도가 깔려있음은 명조 불안정한 변경의 상황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6) 『고려사』 권41, 「공민왕세가」 4, 공민왕 18년 11월 신미.

[표 1] 공민왕 19년(홍무 3년, 1370) 고려의 만주 진출과 초무 기록¹⁷⁾

順序	時期	將帥	成果	備考
1	恭愍王 19年 洪武 3年 1370 정월	李成桂 기병 5천 보병 1만	東寧府 洞知 李吾魯帖木兒 麾下 300餘戶 投降	
2			高安慰 逃亡, 麾下 頭目 20餘 名 및 무리 投降	
3			其他 城 投降, 民戶 1萬 以上 投降, 歸順者 多數	
4			女眞 萬戶 弓大 方物 獻納, 部落民 1百戶를 이끌고 正陵에 隸屬시켜줄 것을 要請	
5	恭愍王 19年 洪武 3年 1370 2월	李成桂	李成桂가 元 樞密副使 拜住·吾魯帖木兒·李伯淵·李長壽·李天 祐·玄多士·金阿魯丁 等와 그 三百 餘戶 獻納	
6		楊伯淵	東寧府 頭目 五十 餘人을 데리고 歸還	
7	恭愍王 19年 洪武 3年 1370 8월	李成桂 池龍壽 楊伯淵	無記錄	東寧府 攻擊 開始
8	恭愍王 19年 洪武 3年 1370 11월	李成桂 池龍壽	義州에서 浮橋 架設, 鴨綠江 渡河, 遼城 攻擊 및 陷落	
9			女真人 達麻다가 使臣을 보내 땅을 獻納	
10	恭愍王 19年 洪武 3年 1370 12월		都評議使司가 東寧府에 咨文을 보내며, 遼陽 住民을 招撫	

공민왕 19년(홍무 3년, 1370), 동녕부 공격 당시 고려의 원정군을 이끌었던 것은 훗날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로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한 해 고려의 만주 진출과 동녕부 공격, 여진족 및 기타 거주민 초무의 실적은 적지 않다. 물론 『고려사』는 후대 왕조 조선에서 편찬하였기에, 특히나 고려 말과 이성계와 관련된

17) 『고려사』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

기록은 100% 신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사실을 날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종 미사여구 등의 거품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해 고려의 만주 진출과 그 성과는 괄목하다 할 수 있다.

고려가 이렇게 공민왕 5년(지정 16년, 1356)과 공민왕 19년(홍무 3년, 1370)에 실시했던 두 차례 만주 진출에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원말명초의 동란 속에서 원의 만주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명 건국 초기 아직 도처에 남아있던 원 잔존 세력의 위협으로 인하여 중원에서 만주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말 홍건적의 난과 각지 漢族 群雄의 난립에 대처하느라 원이 동북의 변경인 만주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위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명 건국 초기 나하추 등 원의 遺將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고려를 든든한 우방으로 삼아 북원과 만주 지역에 대한 안정을 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가 원의 잔재인 동녕부를 공격한 것은 명의 입장에서조차 자신을 돕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둘째, 만주 지역에 대한 비호의 상실과 그로 인한 여진족의 혼란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원대 만주 지역은 요양행성의 관할 하에 통제가 되었다. 그러나 원말 동란이 일자 원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상실하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점차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홍건적의 난으로 만주 역시 극심한 전란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고려가 원을 대신해 만주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여진족에 대하여도 武力을 통한 강경책과 除授를 통한 회유책을 병행하자, 다수의 여진족이 고려에 귀부한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공민왕은 귀순하는 여진족에 대해서 극진한 대우를 했는데, 이는 아마도 이와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여진인을 고려에 귀순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 예로 [표 1] 9의 女真人 達麻大와 같은 경우도 스스로 땅을 헌납하며 고려에 귀순하자, 공민왕은 그에게 大將軍·鎮邊都護府事로 임명하며 예우하였다.¹⁸⁾ 또한 훗날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의형제로 그를 도와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 李之蘭 역시 이와 같은

공민왕의 회유책에 의해 여진 천호의 신분으로 부락민 1백 여호를 이끌고 고려에 귀순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공민왕대 만주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내용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하추의 만주 점거로 인한 형세의 변화이다. 나하추는 칭기즈칸의 명장 무칼리(木華黎)의 후손으로, 홍건적의 난 발발 시 太平路 萬戶로써 많은 공을 세웠던 이다.

공민왕 4년(지정 15년, 1355), 주원장의 공격에 나하추는 포로로 사로잡혔으나, 명 문가의 후예라는 이유로 풀려났다.²⁰⁾ 이후 나하추는 만주의 金山(現 吉林 雙遼)에 자리를 잡으며 점차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 나갔다. 특히 대도 함락 이후 원 조정의 많은 세력이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나하추에게 귀속되는 수도 상당하였다. 上都로 자리를 옮긴 원 순제는 나하추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가는 것을 보며 그에게 遼陽行省 左丞相의 관직을 내려주었다. 만주에 터를 잡고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던 나하추는 명의 동북 변경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고, 이를 의식한 홍무제는 나하추에게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그를 회유하려 하였다.²¹⁾ 그러나 같은 요양행성의 平章 劉益은 명에 투항한 반면에, 나하추는 끝까지 투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대적으로 명을 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고, 고려에도 심각한 외교 문제를 일으켰다. 그것은 바로 공민왕 21년(홍무 5년, 1372) 11월에 발생했던 나하추의 명 牛家莊(현 遼寧省 昌圖鎮) 습격 사건이다.

공민왕 21년(홍무 5년, 1372) 11월 임신, 나하추는 요동에 침범하여 명의 요동 兵站基地인 우가장을 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納哈出가 遼東을 侵犯하여 牛家莊을 掠奪하니, 倉糧 十萬 餘石이 불타고 軍士 陷沒者가 五千 餘人이었다.²²⁾

18) 『고려사』 권42, 「공민왕세가」 5, 공민왕 19년 11월 을사.

19) 女眞 千戶 李豆蘭帖木兒가 百戶 甫介를 보내 一百戶를 데리고 투항하였다(『고려사』 권43, 「공민왕세가」 6, 공민왕 20년 2월 갑술). 이두란은 훗날 '이지란'으로 개명하였다.

20) 『명 태조실록』 권3, 乙未歲(지정 14년(1355)) 6월 병진; 12월 임자.

21) 『명 태조실록』 권41, 홍무 2년 4월 을해; 『명 태조실록』 권52, 홍무 3년 5월 정사; 『명 태조실록』 권66, 홍무 4년 6월 임인.

사실 나하추의 동태는 이미 명이 탐지하고 있었고, 이에 홍무제는 해당 지역의 군사들에게 경계 태세와 함께 정벌 준비를 명한 바 있다.²³⁾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나하추의 급습에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없었고, 결국 명의 만주 진출의 보급 창고였던 우가장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더욱이 홍무 5년은 소위 嶺北之戰, 즉 제2차 대대적 北伐에 나섰던 시기로, 그 해 정월부터 홍무제는 아심차게 두 번째 北征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각지에서 패전 소식이 들려왔고, 결국 북원에게 대패하며 막대한 손실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났다. 우가장 습격 사건은 그해 말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북벌의 실패에 이어 발생하였기에 홍무제를 더욱 분노하게 했을 것이다.

이때 遼東都司 등을 통해 고려와 북원의 내통을 감시하던 홍무제는²⁴⁾ 고려가 북원에 명의 군사 정보를 흘린다고 확신하며²⁵⁾ 고려를 강하게 힐책하였다.

明州에서 解船 500척을 만들고, 溫州에서 500척, 泉州·太倉·廣東·四川에서 3개월 내에 7, 8천척의 배를 만들어 정벌할 것이다. …… 또 納哈出的 동료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군영 안의 일을 엿보고 그에게 소식을 넘겨 우리 牛家莊의 馬糧 10만 糧을 빼앗고, 더욱이 3천의 군마를 잃었다.²⁶⁾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홍무제는 고려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려를 정벌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내용에서 볼

22) 『명 태조실록』 권76, 홍무 5년 11월 임신.

23) 『명 태조실록』 권73, 홍무 5년 5월 무진; 『명 태조실록』 권74, 홍무 5년 6월 신묘.

24) 요동도사는 북원과 고려의 음직임을 예의주시했고, 실제로 양자 간 밀사 파견 등의 비밀스러운 행동까지 탐지하고 있었다.(『고려사』 권134, 「신우열전」 2, 우왕 5년 정월·3월·8월)

25) 실제로 홍무제는 초기에는 고려의 陸路를 통한 입경을 허락하였지만, 고려와 북원의 내통을 이유로 육로를 봉하고 海路를 통한 입경만 허락하였다.(『고려사』 권44, 『공민왕세가』 7, 공민왕 22년 7월 임자) 이후 고려는 안전을 이유로 육로로 바꾸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홍무제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고려는 貢期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해로를 통해 명에 가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임상훈, 2013, 「明初 朝鮮 貢女 親族의 政治의 成長과 對明外交活動 -權永均과 韓確을 中心으로-, 『명청사연구』 38, 14-15쪽).

26) 『고려사』 권44, 「공민왕세가」 7, 공민왕 22년 7월 임자.

수 있듯이, 우가장 습격 사건의 배후에 고려가 있고, 심지어 본인의 제2차 북벌 실패의 원인이 고려와 북원의 내통 및 군사 정보 유출에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시기 공민왕은 비록 친명반원을 천명했지만, 고려의 권문세족 중에는 아직도 부원세력들이 적지 않았다.²⁷⁾ 그러나 홍무제 자신의 북벌 실패를 고려가 북원에게 명의 군사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전가한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억지일 것이다.

이후에도 나하추는 기세를 몰아 명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였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우왕 13년(홍무 20년, 1387) 명의 대대적인 공세에 견디지 못하고 투항하였다. 나하추의 명 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 자세히 기술하겠다.

나하추와 명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고려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서 볼 수 있는 나하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공민왕 11년 2월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趙小生이 納哈出를 끌어들여 三撒과 忽面을 약탈하였다. 元代 전란이 일자, 오랑캐 納哈出가 瀋陽 땅을 차지해 거점으로 삼고 行省丞相이라 칭하였다.²⁸⁾

멸망했던 쌍성총관부의 총관 趙小生이 나하추를 끌어들여 三撒과 忽面 지방을 약탈하며 고려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고려의 東北面都指揮使와 몇 차례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이지만,²⁹⁾ 이성계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며 고려에 더 이상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³⁰⁾ 이는 아마도 고려의 군사력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을 체감했고, 더욱이 명의 대군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려와의 불필요한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27) 공민왕 스스로 역시 간혹 북원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려사』 권42, 「공민왕세가」 5, 공민왕 19년 2월 임오: 3월 경인)

28) 『고려사』 권40, 「공민왕세가」 3, 공민왕 11년 2월 기유.

29) 『고려사』 권40, 「공민왕세가」 3, 공민왕 11년 2월 갑진.

30) 『고려사』 권40, 「공민왕세가」 3, 공민왕 11년 7월.

실제로 이후 나하추는 고려에 말과 方物을 바친다든지, 사신을 보내 來聘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심지어는 고려에 관직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³¹⁾

공민왕대 만주의 상황, 그리고 고려의 만주 진출과 여진 초무 및 고토 수복의 상황은 대체로 위와 같다. 원말 홍건적의 난 등으로 만주에 대한 원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려 공민왕은 반원을 천명하며 국내 부원세력을 일소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쌍성총관부와 동녕부 등지를 공격하며 고토를 수복해 나갔다. 또한 현지의 여진족에 대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며 흡수해 나갔으며, 이 중에는 조선 건국에 큰 영향을 끼친 이치란도 포함되어 있다. 나하추는 만주 점령 이후 명과는 지속적인 적대관계를 보였지만, 고려와는 초기 몇 번의 무력 충돌 이후 고려의 관직까지 요청하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III. 禡王代 納哈出의 沒落과 明의 滿洲 掌握

공민왕 후기, 명은 국내 몽골 잔존 세력이 점차 제거됨에 따라 만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을 시작하며 고려를 압박해 나갔다. 이 시기 명이 점차로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감에 따라, 고려의 만주로의 영토 확대 등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공민왕 말기부터 연이어 등장한 명과의 여러 외교 사건 및 나하추의 몰락과 명의 만주 지배 등으로 여명관계는 점차 경색되어 갔다. 나하추 제거 후 만주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진 명은 이곳을 직접 관할 하에 두기 위해 고려에 일방적으로 鐵嶺衛의 설치를 통보하였고, 이는 결국 이성계의 威化島回軍과 朝鮮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공민왕 23년(홍무 7년, 1374) 9월, 공민왕이 暴薨하자 어린 禡王이 그 뒤를 이었다.³²⁾ 우왕을 옹립하는 데 공을 세운 李仁任은 어린 우왕을 보필하며 고려 조정의 권력을 장악했다. 잘 알다시피 이인임은 우왕 즉위 초, 즉 자신이 정권을 잡은

31) 『고려사』 권42, 「공민왕세가」 5, 공민왕 19년 2월 무인.

32) 『고려사』 권44, 「공민왕세가」 7, 공민왕 23년 9월 갑신.

후부터 명과 북원 사이에서 이중외교를 행하며 명과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민왕 말기부터 발생한 명과의 외교 사건, 즉 공민왕 21년(홍무 5년, 1372) 明使 孫內侍가 고려에서 자살한 것, 공민왕 23년(홍무 7년, 1374) 9월 공민왕의 의문스러운 돌연사, 공민왕 사망 직후 明使 호송관이었던 金義가 명으로 돌아가던 명의 사신 蔡斌을 살해하고 다른 사신 林密을 납치하여 북원으로 도주했던 사건 등 연이은 악재가 발생하자, 고려와 명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어 갔다.³³⁾

공민왕의 갑작스런 弑害 소식에 홍무제는 극도로 분노하였다. 홍무제는 인간적으로 공민왕을 아끼기도 하였지만, 공민왕의 의심스러운 죽음이 고려내 부원세력들의 획책이고, 이들이 다시금 고려 정권을 장악한 것이라고 의심하며, 고려와 북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여기며 분노한 것이다.³⁴⁾ 특히 공민왕 21년(홍무 5년, 1372)에 발생했던 나하추의 우가장 습격 사건 이후, 홍무제는 고려와 북원의 내통을 강하게 의심해오던 상황이었다. 이후 우왕대에 親元과 親明의 변복이 遼東都司 등을 통해 확인되자 홍무제는 고려를 압박해 나갔다. 실제로 홍무제는 고려 내부에 대한 정탐을 지속하였다. 비록 이인임의 이름을 李仁人 또는 李仁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³⁵⁾ 그가 고려의 정권을 장악하고, 북원과의 관계를 재개한 것까지 파악하였다.³⁶⁾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인임의 대중국 노선은 일방적인 친명이나 친원이 아닌

33) 『고려사』 「이인임열전」의 내용에 따르면, 이인임은 국왕 피살의 책임이 재상인 자신에게 있고, 홍무제가 군사를 일으켜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북원과 친교를 맺어야 한다고 여겼다. 또한 공민왕 시해에 관한 사실이 홍무제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하여 김의에게 몰래 지시하여 명사를 살해하여 입을 막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성계와 이인임의 관계, 그리고 조선이 『고려사』를 편찬했다는 것에서 악의적으로 과장되게 기술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고려사』 권126, 「이인임열전」).

34) 임상훈, 2015, 「명초 홍무제의 말 강요와 여명관계」, 『중국사연구』 제99집, 140쪽.

35) 중국어에서 ‘人’과 ‘仁’은 같은 발음으로 ‘런’이라고 읽는다. 구두로 이름을 말하는 과정에서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를 쓴 예는 수없이 많다(임상훈, 2011, 「魚呂之亂研究」, 『全北史學』 39, 369-390쪽).

36) 고려와 북원의 내통을 탐지한 홍무제는 정묘위를 통해 고려를 정벌하겠다고 위협하였다.(『고려사』 권133, 「신우열전」 1, 우왕 2년 8월) 우왕대 고려가 명·북원과 동시에 외교를 진행한 것은 김순자가 그의 논문에서 잘 정리하였다(김순자, 1995, 「여말 대중국관계의 변화와 신흥유신의 사대론」, 『역사와 현실』 15, 125쪽, 〈표 2〉 우왕대 명·북원 사신 왕래표).

자신과 고려에게 유리한 쪽을 따르는 실리 외교 정책이었다. 실제로 당시 고려는 명의 定遼衛·遼東都司 등과도 교류하였으며,³⁷⁾ 만주에서 세력을 유지하던 나하 추와도 관계를 유지하였다. 고려가 이렇게 명과 북원 외에 만주 지역의 여러 세력과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홍무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명을 위협하려는 ‘불손한 움직임’이 아니었고, 중원의 동정을 예의주시하며 급작스런 변화에 미리 대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무제는 제2차 북벌의 대실패, 牛家莊 습격 등 일련의 사건에 ‘고려와 북원의 내통’이라는 것에 책임을 돌렸기 때문에, 공민왕 사후 고려에 대해 상당히 악랄한 정책을 남발해나갔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민왕 사후 명이 고려에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데에는 공민왕의 의문스러운 돌연사, 孫內侍 자살과 明使 蔡斌 살해 등의 외교적 갈등, 고려의 북원과의 내통 등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명이 만주 지역으로 세력을 성공적으로 확장하면서, 명 건국 초기 고려를 통한 동북 지역 안정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명의 내부와 변경이 점차 안정화되며 만주에 대한 통제력이 제고되었고, 북원·나하추의 위협이 약화되어 가자 고려에 대한 중요성과 활용성이 대폭 하락하자 점차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명은 공민왕 20년(홍무 4년, 1371)부터 만주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키기 시작하여, 우왕 원년(홍무 8년, 1375)에 金州(現 遼寧 大連 內)·蓋州·瀋陽 등지에 여섯 위소의 배치를 완료하였다.³⁸⁾

37) 정료위는 홍무 4년 명이 요동을 장악한 후 북원에 대한 방비와 요동 지역 통치를 위해 세운 기관으로, 홍무 8년에 遼東都指揮使司(遼東都司)로 승격하였다. 고려는 이미 정료위일 때부터 관계를 맺어 가며 중원의 소식을 접했다.

38) 이 4년간 명이 만주에 설치한 위소는 6개로, 각각 다음과 같다. 홍무 4년의 蓋州衛, 홍무 6년의 定遼右衛, 홍무 7년의 定遼左衛, 홍무 8년의 定遼前衛·定遼後衛·金州衛이다(張士魯, 2002, 『明代遼東邊疆研究』, 吉林人民出版社, 45-47쪽).



[그림 3] 禡王 元年(洪武 8年, 1375) 明의 滿洲 進出 및 納哈出와의 對立圖³⁹⁾

이로서 명은 나하추의 세력을 직접 봉쇄하고 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나갔다. 홍무제는 또한 만주의 여러 위소에 방비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명을 수차례 내리며 나하추의 공격에 대비하며, 나하추와의 결전을 준비해 나갔다.

만약 (納哈出가) 그 殘兵을 이끌고 邊境을 侵寇한다면, 너희들은 三軍을 이끌고 그를 사로잡아야 한다. 그가 만약 오지 않는다면 역시 마땅히 城을 굳게 쌓아 기다리며 失手하지 않아야 한다.⁴⁰⁾

요즘 날이 추워지며 물이 어니, 오랑캐가 반드시 이때를 타 侵寇할 것이다. 마땅히 城을 굳게 쌓고 들판을 깨끗이 비우고[淸野] 그에 對備하고, 慎重히 그와 싸우지 말라. 그가 나와도 얻는 것이 없고, 물러나도 뒤에 근심이 있게 하라. 險地에 伏兵을 두어 돌아가는 길을 막는다면, 오랑캐를 쉽게 잡을 수 있으리라.⁴¹⁾

39)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 위에 필자가 작성.

40) 『명 태조실록』 권101, 홍무 8년 9월 기미.

41) 『명 태조실록』 권102, 홍무 8년 12월.

우왕 원년(홍무 8년, 1375) 정월부터 실시했던 명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지속적인 압박에 나하추는 결국 그해 12월, 명에 선공을 펼쳤으나 대패하며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때 果然(納哈出가) 侵寇하였다. 都指揮使 馬雲 등이 納哈出가 곧 이를 것을 探知하여, 盖州衛 指揮 吳立·張良·佐房曷 등에게 城을 굳게 지키고 싸우지 말라 命하였다. 이내 納哈出가 이르렀으나, 城안의 防禦가 森嚴함을 보고 敢히 攻擊하지 못하였고, 盖州城을 넘어 金州로 갔다. 이때 金州는 城郭이 完城되지 않았고, 軍士도 적었다. 指揮 韋富·王勝 등이 오랑캐가 온다는 諜報를 듣고 兵士들을 격려하여 여러 城門을 나누어 지켰고, 精銳兵을 골라 城에 올라 防備하였다. 納哈出의 裨將 乃刺吾가 스스로 그 驍勇 數百 騎를 이끌고 城 아래에 이르러 挑戰하였으나, 城 위에서 그들에게 弩를 쏘니 乃刺吾가 傷處를 입고 氣絶하였다.(필자 주: 이후 명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힘) 이에 오랑캐의 기세가 크게 꺾이니 韋富 등이 다시 兵士를 이끌고 나가 攻擊하였다. 納哈出가 不利할 때 오랑캐의 援兵이 이르러 병사를 이끌고 퇴각하였으나, 盖州의 굳건한 防備를 보고 敢히 그 城을 지나지 못하였다. 이내 城 南쪽 10리 밖 沿柞河로 도망가 돌아갔다. 都指揮 葉旺이 그가 將次 물러날 것이라 생각하여 먼저 兵士를 이끌고 柞河에서 待機하는 策略을 냈다. 連雲島에서 窟駝寨에 이르러 十餘里 緣河의 얼음을 壁으로 삼고 거기에 물을 적셔 하룻밤을 보내니 모두 얼어 마치 城과 같았다. 말을 잡기 위해 못 박힌 板子를 모래 속에 숨긴 陷穽을 만들었고, 平地에서는 伏兵을 두어 이를 기다렸다. 老弱者에게는 깃발을 맡아 두 山 사이에 올라 砲聲이 울리면 卽時 깃발을 세우라 命하였다. 馬雲에게도 얼음城 안에 큰 旗 한 個를 세우라 命하였다. 定遼前衛 指揮 周鶚·吳立 등에게 各自 兵士를 嚴히 다스려 기다리라 命하니, 四方이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고요하였다. 마침 오랑캐의 兵士가 이르자, 葉旺 등이 오랑캐가 城 南쪽을 지나길 기다렸다가 砲를 發射하니, 伏兵이 四方에서 일고 두 山에서 깃발이 휘날렸으며, 북소리가 振動하고 화살과 돌이 비처럼 쏟아졌다. 納哈出가 倉皇하게 北쪽으로 도망가다, 連雲島의 얼음城에 부딪혀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모두 함정에 빠져 潰滅하였다. 馬雲이 城 안에서 亦是 兵士를 이끌고 나와 追擊하며 將軍山에 이르니, 斬戮한 오랑캐의 人馬 및 凍死者가 매우 많았다. 葉旺 등이 다시 勝氣를 타고 쫓아 諸兒峪에 이르니, 捕獲한 土馬가 不

知其數였다. 納哈出은 겨우 몸만 살아남았다[僅以身免].⁴²⁾

상기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명은 나하추의 습격에 대비하여 여러 함정과 기책을 준비하였고, 결국 명의 계략에 빠진 나하추는 ‘겨우 몸만 살아남는(僅以身免)’ 쓰라린 패배를 당했다.

이른바 蓋州·金州之戰이라 불리는 우왕 원년(홍무 8년, 1375) 12월, 명의 만주 위소와 나하추의 전투 결과 명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사건은 이후 만주를 둘러싼 여러 세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나하추와 북원은 이 전투로 큰 피해를 입어 중원 진출의 기세가 좌절되며 멸망이 가속화되었다. 실제로 우왕 원년(홍무 8년, 1375) 이후 나하추의 대대적인 중원 침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홍무제는 이때를 빌어 또다시 나하추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勅諭를 여러 차례 보내는 동시에 무력으로 나하추를 제거하려는 준비를 차근차근 밟아 나아갔다.

명은 이 전투로 동북의 근심거리였던 나하추와 북원의 세력에 큰 타격을 입혀 만주에 더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 이후 홍무제는 만주를 명의 직접 통제 하에 두려고 여러 위소를 확충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민왕 대 명의 건국 초기 아직 명 내부에 원의 잔존 세력이 산적하여 만주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려를 이용해 이 지역의 안정화를 기도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으로, 만주 지역에 대한 명의 지배력이 강해졌음을 나타낸다.

우왕 13년(홍무 20년, 1387) 개주·금주의 전투 이후 명은 만주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넓혀 가면서 고려의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깎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42) 『명 태조실록』 권102, 홍무 8년 12월.

[표 2] 蓋州·金州之戰 以後 明의 滿洲 關聯 高麗 壓迫 內容⁴³⁾

順序	時期	內容	出處	備考
1	禡王 元年 洪武 8年 1375	高麗 內 遼陽 避難民 刷還	『高麗史』 卷133, 「辛禡列傳」 1, 禡王 2年 6月	
2	禡王 5年 洪武 12年 1379	高麗軍이 잡아간 遼陽 官民 男女 千餘人 및 高麗로 逃亡한 衛所 軍人 모두 解送	『高麗史』 卷134, 「辛禡列傳」 2, 禡王 5年 正月 乙亥	
3		同知 李兀魯思帖木兒 等 33人 및 黃城 等處의 移住民 刷還	『高麗史』 卷134, 「辛禡列傳」 2, 우왕 5년 3월	
4	禡王 10年 洪武 17年 1384	遼東兵 百餘騎가 江界를 侵掠, 別差 金吉甫와 百戶 洪丁을 사로잡고 歸還	『高麗史』 卷135, 「辛禡列傳」 3, 禡王 10年 正月 癸卯	
5		遼東都司가 女眞 千戶 白把把山에게 七十餘騎를 보내 北靑州를 急襲	『高麗史』 卷135, 「辛禡列傳」 3, 禡王 10年 11月	

명의 고려에 대한 만주 지역의 원주민 및 탈영병 刷還, 고려의 북방 요지 공격 등은 향후 발생하는 나하추 토벌과 관련한 군사적 행동으로 보인다. 홍무제는 개주·금주의 전투 이후 위와 같이 만주에서의 영향력을 넓혀 가며 고려와 충돌하는 부분에서 고려를 압박해 나갔으며, 만주 지역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였다.

우왕 13년(홍무 20년, 1387), 만주에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진 홍무제는 결국 宋國公 馮勝을 征虜大將軍으로 삼고, 그에게 20만 대군을 통솔하여 나하추 토벌을 명하였다.

나하추가 이끄는 妻子와 將士 무릇 十餘萬이었다. 松花江 北쪽 (나하추 부하들이) 納哈出가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무너졌다. 남은 자들이 쫓아오려 하자, 투항한 장수 觀童을 보내 諭示하니 그 무리 역시 항복하였고, 무릇 四萬餘名이었으며, 그들의 愛馬가 二十餘萬匹이었다. 사람·양·말·노새·낙타·수레가 百餘里에 이르

43) 『고려사』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

렀다.⁴⁴⁾

명 대군의 공세를 견디지 못한 나하추는 연이어 패배하였고, 개주·금주의 전투에서 명에 포로로 사로잡혔던 나하추의裨將 乃刺吾마저 나하추에게 항복을 권하니, 나하추는 결국 명에 항복을 선언하였다.⁴⁵⁾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나하추는 매우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하추의 몰락은 곧바로 북원의 중원 진출 계획 무산으로 연결되었다. 이로써 명은 나하추가 남긴 만주를 장악하였고, 홍무제는 만주의 영토와 백성에 대한 공고한 지배를 위해 신속히 위소 건설 작업에 돌입하였다.

우왕 13년(홍무 20년, 1387) 12월, 만주의 幹朵里(現 吉林 琿春)에 三萬衛를 설치하였고,⁴⁶⁾ 이듬해 3월 만주의 奉集縣(位置 未詳)에 鐵嶺衛를 설치하였다.⁴⁷⁾ 철령위를 설치하기 3달 전에 홍무제는 고려에 이를 통보하였다.

戶部에 명하여 高麗王에게 咨文을 보내게 하였다. “鐵嶺 北·東·西의 땅은 예전에 開元에 屬하였다. 그 土著 軍民과 女直·韃靼·高麗人 등은 遼東이 統治한다. 鐵嶺의 南쪽은 예전에 高麗에 屬했으나, 百姓이 모두 本國의 管轄에 屬한다. 疆境을 이미 올바르게 했으니, 各自 便安히 잘 지키고, 다시는 侵越해서는 안 된다.”⁴⁸⁾

홍무제는 철령 북·동·서 지역이 원대 요양행성의 開元路에 속했다는 것을 근거로 만주는 원의 유산이며, 원이 남긴 것은 그 뒤를 이은 명이 갖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같은 명의 일방적인 철령위 설치 통보는 고려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이는 앞선 공민왕대 어렵게 수복했던 고토와 거주민 등을 또다시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고려 내부에서는 홍무제에게 철령위 설

44) 『명 태조실록』 권182, 홍무 20년 6월 정미.

45) 『명 태조실록』 권182, 홍무 20년 6월 정미.

46) 『명 태조실록』 권187, 홍무 20년 12월 경오.

47) 『명 태조실록』 권189, 홍무 21년 3월 신축.

48) 『명 태조실록』 권187, 홍무 20년 12월 임신.

치 철회의 청원을 올렸다.

鐵嶺에서 北으로 文·高·和·定·咸 等 여러 州를 지나 公嶮嶺에 이르기까지 고래로 本國의 땅이었습니다.⁴⁹⁾

이와 동시에 우왕은 崔瑩과 함께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명의 철령위 설치를 저지하려는 방침을 구상했다. 때마침 서북면 都安撫使 崔元沚가 명군이 철령위 설치를 위해 이미 만주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왕은 결국 명과의 일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西北面 都安撫使 崔元沚가 보고하였다. “遼東都司가 指揮 二人에게 兵士 千餘를 인솔하게 하여 江界에 이르러 將次 鐵嶺衛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洪武帝가 鐵嶺衛 設置를 爲해 鎮撫 等 官員을 모두 遼東에 이르게 하였는데, 遼東에서 鐵嶺에 이르기까지 七十站을 설치하였고, 站마다 百戶를 두었습니다.”……(禡王은) 八道の 精兵을 徵發하였다.⁵⁰⁾

결국 우왕 14년(홍무 21년, 1388) 4월 고려는 명과의 결전을 다짐하며 국내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출정하였다.⁵¹⁾ 그러나 잘 알다시피 ‘四不可論’ 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명과의 전쟁에 반대했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며 고려와 명의 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이성계에게 고려의 실권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고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만주 진출과 여진족 초무에 대한 고려의 노력은 이로써 끝을 맺게 되었지만, 조선 초기에 또다시 활발한 만주 진출이 이루어졌다.

49) 『고려사』 권137, 「신우열전」 5, 우왕 14년 2월.

50) 『고려사』 권137, 「신우열전」 5, 우왕 14년 3월.

51) 이때 징발된 병사들의 수는 左右軍을 합하여 38,830명, 시중들던 僉軍이 11634명이었고, 말이 21,682필이었다.(『고려사』 권137, 「신우열전」 5, 우왕 14년 4월 정미) 威化島回軍은 조선 건국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으로서, 『고려사』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인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정 당시 농병이었고, 수차례 왜구의 침입 등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였다. 위의 수치는 당시 초강대국 명에 맞서기 위해 고려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임상훈, 2015, 「명초 홍무제의 말 강요와 여명관계」, 『중국사연구』 제99집, 156-157쪽).

IV. 나가며

14세기 중후반, 대륙에서는 원이 몰락하고 명이 수립되며,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등 동아시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본고는 원말명초라는 격변의 시기, 구체적으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며 원이 만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공민왕 5년(지정 16년, 1356)부터, 이성계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위화도 회군이 발생한 우왕 14년(홍무 21년, 1388)까지, 30여 년에 걸친 고려의 만주 진출과 여진족 흡수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특히 본고는 원말명초의 복잡다단한 한중관계 및 중원의 동란과 내부 사정을 고려의 만주 진출과 연결시켜 살펴보는 데 주력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제II장'에서는 공민왕대의 고려 만주 진출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첫 번째는 공민왕 5년(지정 16년, 1356) 5월에 실시한 군사 행동이다. 잘 알다시피 공민왕은 등극 이후 국내 부원세력을 일소하며 반원을 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에게 빼앗겼던 고토를 수복하기 위한 군사 행동에도 돌입하였다. 공민왕 5년(지정 16년, 1356) 5월, 공민왕은 인당과 유인우 등에게 명하여 각각 서북과 동북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당시 고려의 군사 행동은 모두 성공하여 서북으로는 압록강을 넘어 만주에 위치한 파사부 등 원의 세 참을 함락시켰고, 동북으로는 원에게 빼앗겼던 쌍성을 수복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낳았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공민왕은 이 이후 이 이상 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동안 만주를 향한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수복 지역의 통치와 여진족을 포함한 거주민의 초무에 집중하였다.

공민왕대 두 번째 만주 진출은 십여년이 지난 후인 공민왕 19년(홍무 3년, 1370)에 실시되었다. 이번 군사 행동은 북원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해 만주에 위치한 동녕부를 공격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1년 전부터 동북과 서북의 군사적 요충지에 만호와 천호를 다수 설치하며 공격 준비를 하던 공민왕은 이성계에게 동녕부 정벌을 명하였다. 고려의 이번 출정은 앞선 정벌과는 달리 영토 확장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대신 동녕부 관할 하의 여진족을 포함한 거주민을 고려로 흡수하

는 데에 큰 성과를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고려로 귀순한 여진인 중에는 훗날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의형제로 그를 도와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 이지란도 포함되어 있다.

공민왕대 고려가 만주로 크게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던 원인으로 필자는 아래의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원말명초의 동란 속에서 원과 명이 만주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원말 홍건적의 난과 한족 군웅의 난립에 대처하느라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 갔다. 명초 역시 각지에 원의 잔존세력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상황에서 명 역시 억지로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보다는 고려를 든든한 우방으로 만들어 안정화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로 동란으로 인해 만주 지역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였던 상황이다. 고려는 만주로 진출하며 여진족을 포함한 그 지역의 거주민을 무력을 통한 강정책과 관직 제수를 통한 회유책으로 적극 흡수해 나갔다. 고려가 귀순한 여진족을 예우하자, 전란을 피해 다수의 여진족이 고려에 귀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공민왕대 만주의 정세와 관련하여 원의 요양행성 좌승상 나하추의 존재 역시 매우 중요하다. 홍건적의 난 중 패배하여 만주 금산에 자리 잡기 시작한 나하추는 원의 대도 함락 이후, 원의 잔존세력을 흡수해 나가면서 명의 동북 변경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공민왕 21년(홍무 5년, 1372), 나하추는 명 동북 지역 보급 창고였던 우가장을 급습하였고, 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더욱이 이 해는 홍무제가 정월부터 대대적으로 북벌에 나섰으나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시기였다. 소위 영북의 전투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홍무제는 설상가상으로 발생한 우가장 습격 사건에 매우 분노하였고, 고려가 명에 사신을 보내며 군사정보를 복원에 흘렸다고 강하게 의심하였다. 이는 북벌의 실패를 고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홍무제의 지나친 억지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제Ⅲ장’에서는 공민왕 사후 우왕대 냉각된 여명관계 속에서 만주 지역을 둘러싼 명·고려·북원(나하추)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왕대에 이르러 명은 국내와 변경의 안정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만주 지역을 장악한 나하추의 제거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 앞선 공민왕 21년(홍무 5년, 1372) 나하추의 우가장 습격에 큰 피해를

입은 이후, 홍무제는 나하추에 대한 방비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그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착실히 밟아나갔다. 명은 공민왕 20년(홍무 4년, 1371)부터 만주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키기 시작하여, 우왕 원년(홍무 8년, 1375)에 금주·개주·심양 등지에 여섯 위소의 배치를 완료하며 나하추를 압박해 나갔다. 명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나하추는 명에 선제공격을 펼쳤고, 그 결과는 참패였다. 우왕 원년(홍무 8년, 1375) 12월에 벌어진 개주·금주의 전투에서 명이 승리를 거두면서 나하추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고, 그만큼 명의 만주에서의 영향력 역시 확대되었다.

명의 동북 지역 안정이 가시화되자 홍무제는 고려에 대해 기존의 우호적인 모습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이는 공민왕대 명 내부가 불안한 상황에서 동북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를 통해 동북의 안정을 기도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직접 그 영향력을 만주에까지 펼칠 수 있어 고려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명은 나하추를 점차 옥죄어 가며 만주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갔고, 고려에 대해서도 압박을 이어가 만주 진출을 억눌러갔다.

명은 고려에 대해 만주 지역의 원주민 및 탈영병 쇄환을 요구하였고, 고려의 북방 요지를 공략하는 등 고려의 만주에 대한 영향력 삭감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는 한편, 나하추 토벌의 군사 행동도 착수해 나갔다. 우왕 13년(홍무 20년, 1387), 만주에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진 홍무제는 결국 풍승에게 20만 대군을 통솔하여 나하추를 토벌하도록 명하였다. 명 대군의 파상공격을 견디지 못한 나하추는 결국 명에 항복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명은 나하추가 남긴 만주를 완전 장악하였고, 홍무제는 만주의 영토와 백성에 대한 공고한 지배를 위해 신속히 위소 건설 작업에 돌입하였다.

우왕 13년(홍무 20년, 1387) 12월, 만주의 알타리에 삼만위를 설치하였고, 이듬해 3월 만주의 봉집현에 철령위를 설치하였다. 철령위 설치 3달 전, 홍무제는 고려에 이를 통보하였고, 고려에서는 명이 고려 본국까지 진출한다는 갑작스런 날벼락에 조야가 들끓었다. 홍무제는 철령 북·동·서 지역이 원대 요양행성의 개원로에 속했다는 것을 근거로 만주는 원의 유산이며, 원이 남긴 것은 그 뒤를 이은 명이 갖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에 고려는 홍무제에게 설치 철회의 청원을 올리는 한편,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명의 철령위 설치를 저지하려는 방침을 구상했다. 때마침 명군이 철령위 설치를 위해 이미 만주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왕은 결국 명과의 일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우왕 14년(홍무 21년, 1388) 4월, 고려는 명과의 결전을 다짐하며 국내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출정하였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四不可論’ 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명과의 전쟁에 반대했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며 고려와 명의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이 이후 이성계는 고려의 실권을 쥐고, 허수아비 왕 창왕과 공양왕을 세우며 새로운 국가의 창설을 준비해 나갔다. 이로서 사실상 고려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일이 되었고, 만주 진출에 대한 고려의 노력도 이로서 끝을 맺었다. 그러나 우리민족의 만주로의 진출과 고토 회복 운동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고, 훗날 조선 역시 고려의 뒤를 이어 만주로 크게 진출하였다.

본고는 이처럼 고려 말 공민왕대부터 우왕대까지 복잡다단한 중국 내부의 상황, 그리고 원말명초 고려의 대중관계 등을 중심으로 고려의 만주 진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말명초의 격랑 속에서 고려가 고토를 수복했던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러나 고려의 고토 수복은 상술한 ‘격랑’이라는 단어로는 형용 불가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예측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이는 북원과 명 사이에서의 외교술, 고려의 중원에 대한 정보 획득, 국방력의 강화 등 여러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만주 진출과 고토 회복 운동은 고려를 대신한 조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다가, 영락 연간 명이 대대적으로 만주에 위소를 설치하고 여진족을 초무하며 만주를 완전 점거하며 멈추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조선의 만주 진출을 다루지 못하고 끝냈지만, 이후 이어지는 연구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사료

국사편찬위원회 편, 1958,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鄭麟趾著, 북한 사회과학원 譯, 신서원 編, 2004, 『고려사』, 신서원

談遷 著·張宗祥校點, 2005, 『國權』, 中華書局

宋濂 等 撰, 1976, 『元史』, 中華書局

張廷玉 等 撰, 1974, 『明史』, 中華書局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校勘, 1968, 『明實錄』, 台灣,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2. 논문 및 자료

고석원, 1977, 「여말선초의 대명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高惠玲, 1981, 「李仁任 政權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91

김경록, 2007,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

_____, 2009, 「여말선초 국제질서의 변화와 조·중관계」, 『세계 속의 한국사』, 태학사

김성준, 1981, 「고려와 원·명관계」, 『한국사』 8

김순자, 1995, 「여말 대중국관계의 변화와 신흥유신의 사대론」, 『역사와 현실』 15

_____, 2000, 「여말선초 대원·명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惠苑, 1998, 「高麗 恭愍王代 對外政策과 漢人群雄」, 『白山學報』(백산학회) 51

윤은숙, 2006, 「蒙元 帝國期 옷치긴家の 東北滿洲 支配: 中央政府와의 關係 推移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상훈, 2011, 「魚呂之亂研究」, 『全北史學』 39

_____, 2013, 「明初 朝鮮 貢女 親族의 政治의 成長과 對明外交活動—權永均과 韓確을 中心으로」, 『명청사연구』 39

_____, 2015, 「명조 홍무제의 말 강요와 여명관계」, 『중국사연구』 제99집

황운룡, 1980, 「고려 공민왕대의 대원명관계-관계변개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14

황원구, 1986, 「여말선초의 대명관계」, 『한국사의 재조명』, 민성사

姜龍范·劉子敏, 1998, 「明太祖在位時大明與高麗的關係」, 『延邊大學學報』 2期

刁書仁, 2001, 「元末明初朝鮮半島의 女真族與明·朝鮮의 關係」, 『史學集刊』 3

_____, 2004, 「洪武時期高麗, 李朝與明朝關係探析」, 『揚州大學學報』 8卷1期

薛瑩, 1997, 「明洪武年間明朝與高麗朝關係略論」, 『社會科學戰線』 4 期

張士尊, 1997, 「高麗與北元關係對明與高麗關係的影響」, 『綏化學院學報』 1期

宮崎市定, 1969, 「洪武から永樂へ - 初期明朝政權の性格-」, 『東洋史研究』 27-4

末松保和, 1965,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 『青丘史草』 1

3. 단행본

신정훈, 2003, 「여말선초 대여진정책과 동북면의 영역확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薛虹, 1991, 『中國東北通史』, 吉林文化出版社

張士尊, 2002, 『明代遼東邊疆研究』, 吉林人民出版社

河内良弘, 1992, 『明代女真史の研究』, 同朋舎出版

투고일: 2024년 08월 21일 심사완료일: 2024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0월 11일

■ Abstract ■

Manchuria's Role in Korea-China Relations during the Transition from Yuan to Ming

Lim, Sang-Hun (SoonChunH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political power in Manchuria shifted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Yuan to the Ming,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igns of King Gongmin (1351-1374) and King Woo (1374-1388) of Goryeo. The weakening of the Yuan authority over Manchuria, following the Red Turban Rebellion, opened the way for the Goryeo to reclaim former territories and extend its influences over the Jurchen tribes. The study also explores how early Ming rulers, constrained by internal instability, relied on Goryeo to stabilize the northeastern frontier.

The findings reveal how, as the Ming consolidated power, the Hongwu Emperor asserted territorial control over the region by establishment of the Tieling Garrison (鐵嶺衛) without consulting Goryeo, provoking diplomatic tensions. In response, Goryeo demanded the abolition of the garrison and planned the Conquest of Liaodong (遼東征伐). These escalating tensions culminated in the Wiwha Island Retreat (威化島回軍), which enabled Yi Seong-gye to seize power and establish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highlights the critical role of Manchuria as a contested space in these transitions. It offers new insights into how regional power struggles shaped Korea-China relations and contributed to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from Goryeo to Joseon.

Key words: Yuan to Ming transition, Manchuria, Goryeo Dynasty, Ming Dynasty, North Yuan Dynasty, King Gongmin, King Woo, Emperor Hongwu, Nahachu, Korea-China relations